

朝鮮時代 仁祖의 疾病에 관한 考察¹⁾

金勳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Abstract

Examination of the Diseases of Chosun Dynasty's InJo

Kim Hun

Dept. of Oriental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i University

In this paper, the overall contents of InJo's disease centering on the records from Chosun Dynasty's Official Records were examined. As a result, it was elucidated that the fundamental cause had lied in internal injuries of the Spleen and Stomach. The reason behind the constant change from fever to chills that agonized InJo the most lied not so much in external hazards as much in the injuries of the Spleen and Stomach. The treatment for InJo focused more on acupuncture methods than herbal medicine, which is thought to be characteristic of mid-Chosun Dynasty starting from the times of prior king SunJo or GwangHaeGun.

I. 머리말

壬辰倭亂의 병화가 멎고 겨우 정치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시점에 光海君은 소위 仁祖反正으로 축출된다. 반정을 주도했던 세력은 광해군 시절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렸던 西人들과 광해군의 배다른 조카인 능양군(綾陽君)이었다. 이렇게 일종의 쿠데타에 의한 정권교

¹⁾ 본 논문은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짐.

체로 왕위에 오른 이가 능양군, 즉 조선조 16대 임금인 仁祖이다.

인조는 29세에 왕위에 올라 55세로 사망할 때까지 26년 2개월의 비교적 긴 재위기간을 갖는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인조가 모두 3차례나 도성을 버리고 피난길을 떠나야 했던 혼란과 수난의 시대였다. 즉위 이듬해에는 이괄의 난으로, 인조 5년에는 정묘호란으로, 재위 중반기인 인조 14년에는 병자호란으로 인해 치욕과 굴욕의 세월을 감내해야 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호란의 피해는 어느 때보다 막심해서 왜란 이후 회복되기 시작한 조선경제가 다시 한 번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다.

아울러 말년에 이르러 인조는 개인적 가족사의 비극을 맞게 된다. 병자호란으로 끌려갔던 맏아들 소현세자가 9년 만에 귀국하였으나 입국 2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고, 이후 세자빈 강씨도 사약을 내려 죽게 하였으며, 소현세자의 세 아들도 제주도로 귀양을 보내 그 중 2명은 병사하게 된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인조에 의한 毒殺 혐의가 매우 짙은데¹⁾,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했던 인조의 의심 많고 비정한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인조의 질병에 관한 연구는 이미 발표된 바가 있는데²⁾, 주로 인조에게 빈번하게 시행되었던 번침술(燔鍼術)을 저주(詛呪)와 관련하여 기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중심으로 인조의 질병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인조의 질병

인조의 질병기록은 즉위 2년만인 인조 2년 2월 9일에 최초로 나타난다. 이때의 기록에는 “상이 편찮은 증후가 있었다.”라고만 하여 병증이나 병명을 따로 거론하고 있지 않다. 다만 당시 인조의 나이가 30세로 아직은 강건한 시절이었고 이후 별다른 질병관련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때 거론된 증후는 일시적이고 가벼운 感冒증세 정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32세 때인 인조 4년에는 약방(藥房)³⁾과 여러 대신들이 인조의 건강을 걱정하여 몸을 잘 조리할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하고 있다. 그 내용은 대부분 인조 자신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육선(肉膳)을 받아들일도록 주청하고 있는 것들인데, 계운궁(啓運宮) 具氏의 사망과 관련되어 있다. 계운궁은 인조의 생모로 인조 3년 11월부터 병을 앓기 시작하여 이듬해 1월 14일에 사망한다. 인조는 계운궁이 병을 앓자 어의(御醫)와 의녀(醫女) 한 사람씩을 궐내에 머물면서 숙직하도록 하였고, 별다른 차도가 없자 약청(藥廳)을 설치하고 모든 의관들을 궐내에 머물면서 어머니의 병을 돌보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인조 자신이 직접 시

1) 소현세자의 사인에 관한 논문은 차후 별도로 발표하고자 한다.

2) 김인숙, 인조의 질병과 번침술, 대한의사학회, 의사학, 13권 2호, 2004, p. 198-218.

3) 약방: 內醫院의 別稱.

약(侍藥)과 시질(侍疾)을 하게 되는데⁴⁾, 계운궁이 사망하자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이 지나치고 고기반찬을 멀리한 소선(素膳)을 오랫동안 하면서 건강을 해치게 된다. 이런 정신적인 충격과 비정상적인 식사로 인해 인조는 원기가 손상되어 몸이 수척해지고 얼굴이 검어지며 목소리까지 변하는 증세를 나타낸다.

당시 인조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 식사량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으며⁵⁾ 고기반찬을 들지 않는 소선(素膳)을 장기간 하게 된다. 대신들과 약방에서는 여러 차례 권도(權道)를 따라 육선(肉膳)을 회복하길 주청한다. 그러나 인조는 그때마다 자신에게 특별한 병이 없다고 하면서 이를 물리친다⁶⁾. 이러한 소선은 이듬해 1월에 이르러 慈殿, 즉 仁穆大妃의 하교에 의해 중지될 때까지 근 1년 가까이 지속된다⁷⁾. 이처럼 비정상적인 식사와 함께 어머니를 여윈 정신적 충격은 건강상에 문제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었다.

인조 4년 7월 7일의 기록에는 종실(宗室) 등이 아뢰길 “전하께서는 지난 겨울 侍疾하시면서부터 風寒을 무릅쓰고 찬 곳에 오래 계셨으니… 대간(大艱)을 당하신 뒤에는 정도에 지나치게 애통해 하시어 옥체가 수척해지고 용안이 검게 변하셨는데, 음성이 변한 한 가지 증상만 봐도 결코 가볍지 않으니”라고 하였으며, 동년 7월 13일에는 兩司⁸⁾에서 “애통해 하는 마음이 속에 쌓여 질병이 겉으로 드러났으니, 폐(肺)가 상하여 음성이 변했고 간(肝)이 상하여 혈색이 손상되었습니다.”라고 아뢰고 있다.

이렇게 당시 인조는 시질 과정에 風寒을 썩기도 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으며, 어머니를 여윈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해 안색이 검어지고 목소리까지 변하게 되는 증세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육선을 회복하고 의관들의 진맥과 치료를 받아 몸을 조리할 것을 주청한 대신들의 건의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⁹⁾.

34세 때인 인조 6년 10월에는 침을 맞을 때 입시한 내의원 및 관원들에게 상을 내리기도 하였다¹⁰⁾. 당시 인조는 침을 맞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

4) 계운궁이 사망하기 전인 인조 3년 12월 25일의 기록에는 영의정 이원익 등이 “상께서 오랫동안 시약하고 계시니 바라건대 신중을 기하여 군망(群望)에 부응하소서.”라고 주청한 내용이 나온다.

5) 인조 4년 2월 11일의 기록을 보면 도제조 윤방 등이 “근일 성상께서 늘 맑은 죽을 진어하시는데 하루에 양이 몇 홑에 불과하고…”라고 아뢴 내용이 나온다.

6) 당시 대신들이 인조의 병을 걱정하여 육선을 회복하고 몸을 조리할 것을 주청한 기록들은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주청이 인조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정도로 집요하기까지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인조 4년 7월 11일의 기록에는 인조가 “백관과 양사(兩司)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날마다 번거롭게 하여 氣體를 상하게 하니 과연 내 몸을 보호하려는 도리인가. 요즈음 이 일로 인해 제대로 먹거나 자지도 못하고 心火만 점점 치성하니 어찌 유해무익한 일이 아니겠는가? 다시는 번요스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한다.

7) 인조 5년 1월 19일의 기록에 “자전이 언서로 삼공과 정원에 하교하였다. ‘주상이 오랫동안 소찬을 드시어 밤낮으로 걱정이 되었는데 … 내일부터 비로소 육선을 올리라.’”라고 함.

8) 양사(兩司): 司憲府와 司諫院.

9) 인조는 한차례 보약을 진어하도록 허락하기도 하였다. 인조 4년 8월 5일의 기록에 “약방제조 서성 등이 의관을 시켜 진맥하여 약을 의논하도록 아뢰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재차 보약을 지어 올릴 것을 청하니 따랐다.”라고 함.

10) “내의원 도제조 김류와 제오 이귀에게 호피(虎皮) 1령, 승지 유백승과 주서 박일성에게 활 1장, 의관 신득일 등에겐 각기 반숙마(半熟馬) 1필씩 하사하였다. 모두 침을 맞을 때 입시했기 때문이다.” (인조 6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증세로 인해 침을 맞았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 인조 6년에는 이 날의 기록을 제외하고는 전후에 침을 맞은 기록이 나타나질 않는다. 그러나 침을 맞은 것과 관련하여 상을 하사하기까지 한 것을 보건대, 침시술이 한 두 차례에 그쳤던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시행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인조는 2년전 계운궁을 잃으면서 얻었던 증세가 완전 회복되지 못하고 후유증이 남아 침을 맞았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37세 때인 인조 9년에는 정원¹¹⁾에서 인조가 감기로 인해 제사를 직접 행하기 어려우니 늦출 것을 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¹²⁾.

38세 때인 인조 10년부터는 비교적 질병관련 기록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들은 인조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인목대비의 유고와 관련되어 있다. 인목대비는 인조 10년 6월 28일에 49세를 일기로 사망하게 되는데, 생모인 계운궁이 사망한지 6년여 만에 인조는 다시 정치적 후원자였던 대왕대비 김씨를 잃게 된 것이다. 인조는 계운궁이 사망할 때와 마찬가지로 예로 국상에 임한다. 이 과정에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전의 계운궁 때와는 달리 좀 더 심각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인조 10년 8월 3일의 기록에는 “전하께서 병환에 시중든 처음부터 밤낮으로 애를 태워, 주무심과 수라가 절도를 잃어버림이 상사를 당한 이래로 이미 3개월이 되었으며, 곡읍(哭泣)을 슬프게 하고 푸성귀밥에 물을 마심으로 해서 부지불각 중에 점차로 건강을 손상시킨 것이 반드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며, 보름 후인 8월 17일에는 인조에게 편찮은 징후가 있자 좌의정 이정귀 등이 병을 숨기지 말고 증세를 약방에 알려 약을 의논하도록 주청한다¹³⁾.

아울러 인조의 병증에 관해서도 이전과는 달리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거론된다. 동년 8월 25일에 대신들이 아뢰는 말 가운데 인조의 안색이 검고 몸이 야위었으며, 땀이 나고 오한증세가 있으면서 한쪽이 마비되는 증세가 나타나서 보통의 감기증세와 다른 상황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¹⁴⁾. 이러한 인조의 병을 약방에서는 內傷과 外感이 겹친 것으로 진단한다¹⁵⁾. 즉, 인조의 주된 병증은 그 원인이 內傷에 있는데, 내상으로 인해 衛氣가 虛해진

10월 21일)

11) 정원(政院): 承政院의 약칭.

12) “정원에서 상이 감기가 있다는 이유로 친제(親祭)를 물려 행하기를 청하니, 답하였다. ‘재해가 흑심하고 날씨가 이미 정해졌으니 물려 행하기가 곤란하다.’” (인조 9년 5월 14일)

13) “이때에 상에게 편찮은 징후가 있자, 좌의정 이정귀, 우의정 김상응이 아뢰기를, ‘근래에 상께서 편찮으시다고 들었습니다. … 성상께서는 병을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경계를 깊이 생각하시어 근일 성상의 증세를 가지고 분명히 약방에 내려보내 약을 의논하여 보호하는 자료를 삼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병이 비록 대단함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경들의 걱정함이 이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의관에게 물어 약을 복용하겠다.’”

14) “안색이 몹시 검고 야위셨기에 신들은 놀라고 걱정스러우며 안타깝고 절박하여 어떻게 할 바를 몰랐었습니다. 성상께서 춘추가 한창 때이므로 신모(神貌)가 튼튼하고 윤택하셨는데 하루아침에 수척하고 초췌해졌으니, 이는 필시 기운이 계속 손상되어 이 지경에 이른 것으로서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더구나 땀이 절로 나고 오한이 드는 증세는 비록 조금 준 것 같지만 한쪽이 허약하여 마비되는 징후가 외부에 나타나고 있으니, 이것이 보통 감기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상태에서 찬바람을 쐬면서 外邪에 감촉된 것으로 진단한 것이다. 당시 인조는 상례에 임하면서도 침을 맞았는데¹⁶⁾, 廬幕에 머물면서 찬바람을 쐬었던 까닭으로 외감이 겹쳤던 것이다. 이러한 내상에 이은 외감을 약방에서 ‘재차 감염’이라 표현했던 것이고, 그 유발요인을 침구를 시술하면서 바람을 쐬 것과 아울러 애통하여 곡읍(哭泣)하는 등 2가지 금기를 어겼기 때문으로 이야기한다.

당시 측근의 대신들도 인조의 병증에 대한 근원적 원인을 내상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내상병은 脾胃의 병으로 파악했다. 즉, 이원익은 인조의 내상병을 脾胃의 병으로 말하였으며¹⁷⁾, 이원익의 상소 보름 뒤에 이귀도 인조에게 비슷한 내용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¹⁸⁾. 이귀는 이전의 계운궁의 상사(喪事)를 당했을 때는 춘추가 왕성한 시절이어서 기력이 좋았지만 지금은 이전과 달리 기력이 많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우선 몸을 조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비장(脾臟)과 위장(胃腸)의 증세를 거론한다. 또한 인조의 안색이 지나치게 검게 되어 염려스러우니 낙죽(酪粥)을 복용할 것을 주청한다. 낙죽은 타락죽(駝酪粥)이라고도 하는데 쌀을 곱게 갈아 牛乳나 羊乳에 끓인 죽으로, 주로 우유를 사용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東醫寶鑑』에도 우유가 虛하고 야윈 것을 보하고 煩渴을 멎게 하면서 피부를 윤택하게 하며, 心肺를 보하고 熱毒을 푼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타락은 번갈증과 열이 나고 답답한 것, 가슴이 달아오르며 아픈 것을 치료한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⁹⁾. 따라서 낙죽을 복용하도록 한 것은 脾胃를 조리하면서 몸이 虛한 것을 보하고자 한

15) “삼가 생각건대 내상(內傷)이 주된 증세입니다. 무릇 내상의 증세는 살갗이 단단하지 않아 잠깐 찬바람을 쐬면 바로 한기가 들고 열이 나는 증세가 있게 됩니다. 더구나 연일 쑥으로 땀을 뜨고서 갑자기 삭전(朔奠)을 올릴 때에 참석하였으니, 성상의 건강이 더 손상된 것은 참으로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질병이 되는 것이 내상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또한 재차 감염된 것보다도 더 큰 것이 없으며, 침구(鍼灸)에 꺼리는 것은 바람을 쐬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없고 또한 곡읍(哭泣)하는 것보다도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금기를 범하여 안팎이 모두 손상되어, 재차 감염의 증세로 형성되어 점점 몸져 누움에 이르면서도 오히려 외정(外廷)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못 듣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전하께서 아무리 질병을 숨기고자 하시더라도 신들이 또한 들은 바가 있어 결코 그것이 거짓말이 아닌 줄을 알고 있으니, 의관(醫官)으로 하여금 들어가 진찰하여 제때에 치료하게 하소서.” (인조 10년 9월 6일)

16) 인조 10년 8월 24일의 기록에 약방이 침을 맞거나 땀을 땀 때 제조 이하가 모두 입시하도록 청하나 인조는 여차(廬次)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따르질 않는다.

17) “삼가 듣건대 성체(聖體)가 편안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비위(脾胃)가 상한 데서 연유한 것인데, 여차(廬次)에 거처하신 이후로 지금 이미 4개월이 되도록 아직까지 권도를 따르시라는 주청에 대하여 윤택하지 않고 계신다고 합니다.” (인조 10년 9월 6일)

18) “이귀가 대답하길 ‘...상께서 지난날 계운궁(啓運宮)의 상사(喪事)를 당하였을 적에는 춘추(春秋)가 한창 왕성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상례(喪禮)를 지켜도 보전되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력이 전일에 비하여 아주 다른데, 만약 지나치게 슬퍼하다 상하시게 되어 지탱하지 못하신다면 효도로 끝마치는 도리가 아닙니다. ... 다만 비장(脾臟)과 위장(胃腸)의 증세는 반드시 권도를 따라야 조섭하여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 병이 대단한 지경에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여러 신하들이 들어와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걱정들이 너무나 지나친 것이다. 경이 지금 들어와서 보니 내가 과연 대단히 아픈 데가 있는가?’ 하자, 이귀가 아뢰기를 ‘원기(元氣)가 이미 상하면 외부의 나쁜 기운이 쉽게 침입하여 찬바람을 잠깐만 쐬어도 바로 크게 상하게 되는데, 상의 모습이 수척하여 검음이 너무나 심하시니 어찌 대단히 염려스럽지 않겠습니까. 졸곡 전에는 비록 권도를 따르지 않으시더라도 반드시 낙죽(酪粥)으로써 차츰차츰 조리 보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정성이 이에 이르니 낙죽은 마땅히 먹겠다.’ (인조 10년 9월 20일)

19) “牛乳 쇠젓 性微寒 味甘無毒 補虛羸 止煩渴 潤皮膚 養心肺 解熱毒”

것이며, 이후 인조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증세인 上熱感을 치료하는 데도 좋은 보양식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인조는 인목대비의 거상을 행하는 과정에 건강을 많이 해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신들이 여러 차례 거상의 예를 간소하게 하거나 생략하기를 청하게 된다. 이러한 주청에 대해 인조는 병세가 회복되었다고 하면서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는다²⁰⁾. 그러나 오우제(五虞祭)²¹⁾와 졸곡제(卒哭祭)²²⁾는 주청을 받아들여 친히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건대²³⁾ 당시 병세가 인조의 말처럼 완전한 회복국면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특기할만한 것은 이 때 예조 참의 이준이 임금의 치료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기록이다. 인조 10년 11월의 기록에는 이준이 상소하기를 인조의 건강이 편치 않는 것을 혹시 사술(邪術)에서 비롯된 재앙이 아닌가 의심을 하는데 이것은 지나친 생각이고 상례를 거행하면서 상한 결과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몸을 보양하는 약재를 통해 원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올바른 치료법이 된다고 하였다²⁴⁾. 약 3개월 후에 이준은 이와 비슷한 내용의 상소를 다시 올리는데, 성급한 효과를 바라지 말고 비장(脾臟)을 보하는 약을 쓸 것이며,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 안정을 취할 것을 주문한다²⁵⁾. 이때 이준은 인조의 질병과

“醕 타락 性寒 味甘酸無毒 止煩渴 熱悶 心膈熱痛” (許浚,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87, p. 693.)

20) “약방이 발인(發引)하면서 곡하고 고별할 때 여차(廬次) 앞뜰에서 예를 거행하고 우제(虞祭) 역시 오래 의의 섭사의(攝事義)에 의해 시행할 것을 계청하니, 상이 이르길 ‘증세가 거의 다 나아 회복되었으니 경들은 염려하지 말라.’ 하였다.”(인조 10년 9월 28일)

“양사(兩司)가 합계하기를 ‘인산(因山)이 이미 날짜가 정해져 … 성상께서 편치 못하신 지가 이미 두어 달을 넘어 지금은 안팎이 모두 상하여 드디어 위중하심에 이르러 밀실 안에서도 오히려 화롯불을 놓아 두고 있으니 …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지극한 심정을 억눌러 안뜰에서 예를 거행할 것을 특별히 운허소서’ 하니 상이 답하길 ‘전일 병이 지금 나왔으니 부디 지나치게 염려말라.’ 하였다.”(인조 10년 10월 1일)

“약방이 바깥뜰에서 예를 거행하는 일을 정지할 것을 청하니 상이 이르길 ‘증세가 대단함에 이르지 않았으니 염려말라.’ 하였다.”(인조 10년 10월 4일)

“상이 곡하며 고별한 뒤로부터 펍 편치 않자 약방과 정원이 평상시의 수리를 힘써 드시라고 청하니 상이 이르길 ‘졸곡이 멀지 않았으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 하였다.”(인조 10년 10월 7일)

21) 오우제(五虞祭): 우제(虞祭)는 장례를 치른 뒤 집에 돌아와 지내는 제사. 예(禮)에 천자는 구우(九虞)를, 제후는 칠우(七虞)를, 경대부(卿大夫)는 오우(五虞)를, 사(士)는 삼우(三虞)를 지냄.

22) 졸곡제(卒哭祭): 우제(虞祭)가 지난 뒤에 지내는 제사. 사람이 죽은 지 석달 만에 오는 첫 丁日이나亥日을 가려 지냄.

23) 인조 10년 10월 10일에 인조가 오우제를 친히 지내려 하자 대신과 양사가 만류하였고 이를 따른다. 동월 16일에는 약방과 대신들이 졸곡제를 직접 거행하지 말 것을 주청하였으나 따르지 않다가 하루에 4차례나 아뢰니 그제서야 따르게 된다.

24) “예조 참의 이준(李竣)이 상소하기를 ‘요즈음 어떤 자는 성후(聖候)가 편치 못한 것이 혹 사술(邪術)에서 비롯된 재앙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데, 그것은 지나친 생각입니다. 전후의 하교에 초상(初喪) 때에 상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지당하신 논입니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은 동요되는 바가 있으면 바깥 사기(邪氣)가 끼여들 수도 있는 법입니다. 이어 생각건대 상후(上候)가 편치 못한 것은 실로 슬픔이 지나친 데에서 기인한 것이니, 더욱 몸을 보양(補養)하는 약재를 드시어 원기를 강장하게 하신다면 바깥 사기 따위는 해를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자 상이 유념하여 시행하겠다 하였다.” (인조 10년 11월 2일)

25) “이준이 상소하기를 ‘삼가 살피건대 옥체가 편치 못하심은 상중(喪中)에 피로가 쌓인 나머지 원기를 잃은 데에서 온 것입니다. 비장(脾臟)을 보하는 약을 많이 복용하되 성급한 효과를 기대하지 말고 오랫동안 안 조섭하면 자연 회복될 것입니다. 또 생각건대 양생의 방법은 먼저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고 섭양의

관련하여 사수를 거론하면서 ‘호매(狐魅)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지 썩은 뼈가 작용하여 괴변을 부린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 사수(邪祟)는 『東醫寶鑑』에도 거론되는²⁶⁾ 원인미상의 정신이상 증세로, 보고 들으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신없어 흔히 헛것에 들린 것으로 표현되는 병이다²⁷⁾. 호매(狐魅)²⁸⁾도 사수와 마찬가지로 귀신에 홀린 것 같은 정신이상 증세를 가르킨 말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수는 현대적 용어를 빌어 표현하자면 정신분열증이나 히스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인조는 사수 증세를 가진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정신분열증이나 히스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실록에 나타난 인조의 질병기록 가운데 정신질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인조는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또한 쉽사리 치료되지 않는 자신의 질병을 저주와 관련지어 의심을 했었고, 대궐 주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떠돌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저주관련 병증을 사수로 인식·표현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주술적 방법을 동원한 저주는 당시 상당히 성행했었는데²⁹⁾, 궁중에서도 이미 저주 사건과 관련하여 궁인들이 사사(賜死) 또는 처형되기도 하였다³⁰⁾. 이때 사사된 귀희와 옥지는 인목대비를 모셨던 궁인들로 저주하는 물건을 껌내에 묻은 것으로 의심받아 본인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희생된다. 이 날의 기록을 보면 인조가 인목대비 측근들에 의한 저주를 충분히 의심할 수도 있는 사건이 함께 거론되어 나온다. 즉, 4개월 전 인목대비의 초상 때에 궁중에서 임금의 폐하고 세우는 내용이 들어있는 백서(帛書) 3폭을 발견하였는데, 인조가 왕실의 척속(戚屬)들에게 보여주고 난 후 불살랐다고 한 것이다. 사관의 부연기록에는 이 백서가 광해군 시절 인목대비가 폐위되어 서궁(西宮)에 유폐되었을 때 쓴 것이라는 향간의 소문을 실어 놓기도 하였지만 사실여부는 알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³¹⁾. 인목대비 임종 무렵, 인조와 인목대비

방법은 희로(喜怒哀)의 감정을 절제하여야 됩니다. 대개 마음 속에 지키는 것이 있으면 외부의 사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희로를 절제하면 기운이 화평하여 병이 나지 않습니다. … 일용 행사간에 간혹 충격으로 인해 심기가 동요할 때마다 허화(虛火)가 올라 사려가 어지러워지면 경계(驚悸)의 증세가 따릅니다. 이렇게 되면 비록 좋은 약이 있어도 쉽게 효력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 한편 저주란 말세에 와서 나온 것으로 인심이 지극히 사악하여 이러한 일이 있긴 합니다마는 … 이른바 사수(邪祟)란 것은 호매(狐魅)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지 후세에서 말한 바 썩은 뼈가 작용하여 괴변을 부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여러 의원의 말에 따라 한결같이 원기를 보익하는 것을 위주로 하소서. … 침을 맞을 때에는 심기가 반드시 동요하는데, 심기가 동요하면 화(火)가 상승하고 이어 풍사(風邪)가 덮치게 마련이니 자주 침을 맞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너그럽게 답하였으나 그대로 시행하지는 못하였다.” (인조 11년 2월 3일)

26) 許浚,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87, 雜病篇 卷七, p. 530-531.

27) 동의학사전, 서울, 까치, 1990. p. 441.

28) 정신이상과 관련된 호매(狐魅)에 대해서는 의서에 특별히 거론된 바가 없다. 다만 『中文大辭典』에는 호매는 여우가 사람 몸으로 변해 다른 사람을 미혹시킨 것(狐魅 謂狐化作人形 以迷惑人也)이라 하였는데, 도깨비에 홀린 증상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中文大辭典, 臺北, 1985, 卷六, p. 177.)

29) “이때 저주하는 번고가 매우 성하여 사대부 집안에서도 이것 때문에 옥사가 일어나는 일이 많았다.” (인조 9년 8월 11일)

30) 인조 10년 10월 23일에 대신들이 “궁중에 저주하는 번고가 있어 흉측한 물건이 남자하다고 합니다. 엄히 국문하여 진상을 파악하도록 하소서.”라고 청하자 궁인 귀희와 옥지, 그리고 귀희의 종 덕개를 신문하여 사사하고 처형한 기록이 나온다.

31) “당초에 인목왕후의 초상에 백서(帛書) 3폭을 궁중에서 발견하였는데, 반고(頒告)나 주문(奏聞)에 임금

사이의 관계가 어떠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지금 정확한 백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광해군을 겨냥한 것인지, 아니면 인조를 겨냥한 것인지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인조는 광해군이 축출된지 10년이 넘도록 없애지 않은 백서는 광해군이 아닌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군권이 취약했던 인조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의심은 누군가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저주로 인해 자신의 병이 생긴 것은 아닌지 하는 끝없는 불신감을 갖게 하였을 것이다. 이런 의심을 바탕으로 인조는 자신의 질병을 저주와 관련된 것으로 믿게 되었고, 저주를 푸는 주술적 방법까지 동원하자 이준이 이를 비판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약 7년 뒤에 이르러 다시 한 번 저주와 관련한 옥사가 벌어지게 되는데, 육경(六卿)이 “대내(大內)에 저주의 변고가 있어 침소 가까운 땅에서 사특하고 더러운 물건을 찾아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³²⁾라고 하였으며, 저주관련 조사를 벌인 국청에서도 “발견된 물건이 시어소(時御所)에 14곳, 동궁(東宮)에 12곳, 인경궁에 26곳, 경덕궁에 4곳이나 됩니다. … 흉악하고 더러운 물건을 묻은 곳이 대부분 굴뚝과 연통 및 계단 사이에 있어 …”³³⁾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때도 다수의 궁인들이 가혹한 고문으로 죽게 되는데, 사건의 배후로 의심되는 인목대비의 딸인 정명공주까지 처벌하고자 하였지만 대신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는 못한다³⁴⁾.

인조의 나이 39세가 되는 인조 11년에 들어오면 빈번하게 침을 맞은 기록들이 주를 이루어 나타난다. 이 무렵부터 인조는 주로 이형익(李馨益)이란 인물을 통해 침을 맞기 시작하는데 사망하기 직전까지 계속된다. 그런데 이형익의 침 치료법은 거의가 번침요법(燔鍼療法)이었다. 번침법은 처음부터 많은 논란을 야기하게 되어, 이것이 올바른 치료방법이 아니라는 논란이 계속되었고, 이형익을 탄핵하는 주청과 상소가 연이어 올라온다. 그러나 인조는 끝까지 이형익을 신뢰하여 치료를 맡긴다. 이형익은 인조의 사주를 받아 소현세자를 독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이기도 한데, 당시 인조의 최측근이자 가장 총애를 받았던 의관이었다. 실록 가운데 이형익에 관한 기사는 인조 10년 11월 2일에 처음 나타난다. 대흥(大興)³⁵⁾ 땅에 이형익이란 사람이 침술로 이름을 얻었는데 내의원에서 불러 오고자 하므로 급료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³⁶⁾. 이러한 요청은 인조에 의해 곧바로

을 폐하고 세우는 내용처럼 되어 있었다. 상이 꺼내어 척속(戚屬)들에게 보여주고 얼마 후에 그 글을 가져다가 불살라버렸다. 어떤 사람은 왕후가 서궁에 유폐당하였을 때 쓴 것이라고 말하지만, 외부 사람으로는 그것이 그러한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인조 10년 10월 23일)

32) 인조 17년 8월 29일.

33) 인조 17년 9월 2일.

34) 저주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전술한 김인숙의 논문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35) 대흥(大興): 忠淸道 洪州牧 大興縣. 지금의 충남 예산군 대흥면 일대에 해당.

36) “대흥(大興) 땅에 이형익(李馨益)이란 자가 있어 약간 침법(鍼法)을 알아 사기(邪氣)를 다스린다고 세상 사람을 현혹했는데, 남의 괴질(怪疾)을 치료하여 간혹 효험을 본 경우도 있었다. 이때 와서 내국(內局)이 아뢰기를 ‘이형익의 침술이 매우 묘하다고 하기에 본원(本院)이 불러 오려고 했으나, 먼 데에 사는 사람이라서 돈을 마련할 곳이 없으니, 해조로 하여금 급료(給料)토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괴이하고

거부되었으나, 결국 이듬해 1월 내의원의 주청을 받아들여 이형익에게 봉록을 주고 서울에 머물도록 한다³⁷⁾. 이형익은 서울에 불러 올라온지 5일 만에 처음으로 인조에게 번침을 놓는다³⁸⁾. 燔鍼은 인조실록을 제외하고는 다른 임금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치료법이다³⁹⁾. 즉, 조선조 역대 임금 가운데 번침을 맞은 유일한 임금이 인조라 볼 수 있다.

번침은 『黃帝內經』부터 수록되어 나오는 전통적 침법의 하나이다. 「素問·調經論」에 “筋에 병이 있으면 燔鍼法으로 그 아래를 劫刺하여 筋이 緊急해진 곳에 도달하게 하고, 병이 骨에 있으면 焮鍼法과 藥熨法을 시행한다.”⁴⁰⁾라고 하였으며, 「靈樞·經筋」에도 痺症 치료를 위한 치료법으로 번침을 빨리 자침하였다가 신속히 발침하는 방법을 의미한 “燔鍼劫刺”라는 문장이 여러 차례 나타난다. 또한 「靈樞·官鍼」에서는 아홉 가지 침법 가운데 하나로 焮刺法을 거론하고 있는데⁴¹⁾, 번침을 자침하여 痺症을 치료하는 방법이라 말하고 있다.

번침은 대략 침을 따뜻하게, 혹은 뜨겁게 달궈 자침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內經에서는 정확하고 자세한 시술방법까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즉, 자침한 후에 침병(鍼柄)에 쭉뚝 등으로 가온(加溫)하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침을 달궈 다음 자침하는 것인지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전술한 「靈樞·官鍼」에서는 번침을 焮刺로 말하였는데, 이 부분 張介賓의 주석에서는 “焮刺는 자침 전에 침을 달궈 찌르는 방법으로 후세의 火鍼에 속하는 것이다. 寒痺를 치료할 때 쓴다.”⁴²⁾라고 하고 있다. 즉, 焮刺法이 번침이며 자침 전에 먼저 침을 달궈서 자침하는 방법이라 말한 것이다. 그러나 또 전술한 「素問·調經論」에서는 ‘筋에 병이 있으면 燔鍼法을, 병이 骨에 있으면 焮鍼法과 藥熨法을 시행한다.’고 하여 燔鍼과 焮鍼이 같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調經論」의 燔鍼과 焮鍼에 대한 차이에 대해 張介賓은 “燔鍼은 침을 찌른 후에 불로 침체(針體)를 달궈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焮鍼은 먼저 불로 침을 빨강게 달궈 다음 찌르는 것이니 단지 따뜻하게 하는 것만은 아니다. 寒毒이 단단히 맺힌 병증에는 이 방법이 아니면 치료되지 않는다.”⁴³⁾라고 하였으며, 김달호도

허탄한 슬법을 추장(推獎)할 필요가 없으니, 급료하지 말라.’ 하였다.”

37) “내의원(內醫院)이 침의(鍼醫) 이형익(李馨益)에게 봉록을 주어 서울에 머물러 있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이형익은 대흥(大興) 사람인데, 그 위인이 허탄하고 망녕되어 번침술(燔鍼術)로 병을 고친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많이 현혹되었다.”(인조 11년 1월 17일)

38) “상이 이형익(李馨益)에게 침을 맞았다. 이때 상이 편찮은 지 오래였는데, 궁중에서는 저주를 입은 탈이라고 의심하였다. 이에 이르러 이형익을 불러 번침(燔鍼)을 맞았다.”(인조 11년 1월 22일)

39) 인조 이후, 효종대에도 2차례(효종 1년 윤1월 28일, 효종 2년 1월 24일) 번침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 바가 있다. 그러나 효종이 아닌 왕대비가 번침을 맞은 기록들이다. 이 때 번침은 이형익이 아닌 다른 의관에 의해 시술된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이형익은 인조의 사망으로 인해 경원부에 유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형익은 효종 2년 1월 26일에 왕대비의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석방된다.

40) “燔鍼劫刺 其下及與急者 病在骨 焮鍼藥熨”(金達鎬, 注解補注黃帝內經素問, 서울, 의성당, 2001, p. 257.)

41) “九日焮刺 焮刺者 刺燔鍼則取痺也”

42) “謂燒鍼而刺也 卽後世火鍼之屬 取寒痺者 用之 (張介賓, 類經[下], 서울, 대성문화사, 1982, pp. 424-425.)

43) “燔鍼者 蓋納鍼之後 以火燔之使煖也 焮鍼者 用火先赤其鍼 而後刺之 不但煖也 寒毒固結 非此不可”(張介

“燔鍼은 자침 후에 뜸쑤를 붙여 鍼體에 열기를 가하는 방법이고, 焮鍼은 鍼을 달구어 뜨겁게 한 후 자침하는 방법이며, 劫刺는 빨리 자침했다가 신속하게 발침하는 방법이다.”라고 주석을 달고 있다⁴⁴⁾.

그렇다면 이형익의 번침술은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김두중은 『韓國醫學史』에서 燔鍼, 火鍼, 溫鍼에 대한 차이를 논하면서 이형익의 번침술이 자침 전에 침을 달구는 방법이었는지, 아니면 뜸을 이용한 溫鍼 정도의 방법이었는지 확실한 문헌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하였다⁴⁵⁾.

몇몇 근거를 생각해 보면 이형익의 번침술은 단순히 뜸을 이용한 溫鍼 정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형익의 번침법은 자침 전에 침체(鍼體)를 먼저 불로 별정계 달귀 시술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첫째로, 단순히 온침 정도의 방법이라면 이형익의 번침술을 당시 ‘괴이한 방법’이라고까지 지칭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처음 내의원에서 이형익을 불러 오고자 급료를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할 때, 인조는 이형익의 번침술을 “괴이하고 허탄한 술법”이라 말하며 물리쳤고, 이후 인조 11년 2월 23일의 기록에도 홍문관의 상주에 이형익의 번침술을 “괴이한 방법”이라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이형익의 번침술을 괴이하다고 한 것은 뜸을 이용한 溫鍼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이유는 이후 기록을 보면 대사간 김광현이 이형익을 비판하면서 이형익의 번침술을 바로 화침(火鍼)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⁴⁶⁾. 화침은 일반적으로 자침 전에 침체(鍼體)를 불로 먼저 달구는 방법을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은 이형익의 번침술이 온침 정도가 아닌 바로 화침의 시술법을 드러내는 증거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인조 21년에 사간원에서 인조가 번침에 맹목적으로 의지함을 “살을 지지는 고통도 꺼리지 않으시는 정도”라고 언급하고 있으며⁴⁷⁾, 인조 26년의 기록에는 “침을 맞을 때 옥체의 살갓에서 불에 타는 것 같은 소리가 창문 밖으로 들려왔다.”⁴⁸⁾라고 표현한 것이다. 단순히 온침 정도라면 이런 기록이 나올 수 없고, 자침 전에 불로 별정계 달구는 화침법 정도가 되어야 가능하다 생각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형익의 번침술은 內經에서 언급한 쉬자법(焮刺法), 즉 자침전에 침을 먼저 불에 달구어서 시술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번침 또는 쉬자법은 일반적으

實, 類經[上], 서울, 대성문화사, 1982, p. 305)

44) 金達鎬, 注解補注黃帝內經素問, 서울, 의성당, 2001, p. 257.

45) 金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81, pp. 330-331.

46) “대사간 김광현(金光炫) 등이 차자를 올려 다섯 가지 일을 진술하기를 … 삼가 듣건대 또 화침(火鍼)을 맞으신다고 하니 이는 범인도 맞을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지존의 옥체이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머리덜이 서고 마음이 떨렸습니다. 전년에 약방(藥房)에서 이형익에게 녹을 줄 것을 청하자, 전하께서 그가 괴탄하다고 물리치시므로 조야가 모두 흠양하였는데, 이 사람의 요괴한 의술이 끝내 전하를 현혹시킬 줄을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인조 11년 2월 22일)

47) 인조 21년 8월 9일

48) 인조 26년 8월 2일

로 전술한 장개빈의 주석처럼 寒痺症⁴⁹⁾이나 乳腺炎, 癰癤 등에 쓰이는 침법인데⁵⁰⁾, 박찬국은 그 이유를 번침이 자체의 뜨거운 열기로 氣를 보하여 화농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말하였다⁵¹⁾. 그렇다면 번침을 맞은 인조는 寒痺症이나 乳腺炎, 癰癤 등의 화농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실록의 기록에는 이런 병증의 언급이 나타나질 않는다. 인조가 번침을 맞은 목적은 寒痺症이나 화농성 질환을 치료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고, 치료가 여의치 않은 자신의 질병, 즉 고질적인 寒熱往來 증세 등을 저주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치료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진다. 처음 이형익에게 번침을 맞은 날의 기록에도 저주와 관련하여 번침을 맞았다고 하였으며⁵²⁾, 인조 26년의 기록에도 인조 스스로 번침을 맞은 이유가 寒熱이 왕복하는 증상을 다스리기 위해 한 것⁵³⁾이라고 직접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번침요법은 처음 시작부터 논란거리가 된다. 이형익이 처음으로 번침을 놓은 한 달 뒤에 옥당⁵⁴⁾에서 이형익의 치료법을 괴이한 방법이라 말하면서 이형익에게만 치료를 맡기지 말고 여러 의원들에게 맡겨 보통 처방에 의해 치료하도록 주청한다⁵⁵⁾. 옥당의 주청 하루 뒤에는 간원이 이형익을 ‘요망한 의원’으로 표현하며 침을 맞을 때 약방 및 승지와 사관을 함께 입시하도록 아뢴다⁵⁶⁾. 그해 10월의 기록에는 이형익이 번침을 놓았는데

49) 寒痺: 風寒濕의 邪氣가 팔다리의 뼈마디와 經絡에 침습하여 생기는데 그 중에서 寒邪가 성한 痺症을 말한다. 뼈마디가 몹시 아프고 아픈 곳이 일정하며 차게 하면 더 아프고 덥게 하면 경해지며 때로 손발이 오그라들기도 한다. 아픈 부위의 살갓은 차고 창백하다. 류머티즘성 관절염에서 볼 수 있다. (동의학사전, p. 1131.)

50) 동의학사전, p. 565.

51) “燔鍼은 주로 痺症이나 악성종양 같은 類에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면 왜 燔鍼을 쓰는지 생각하여 보자. 痺症은 寒이나 濕이 성하여 五行의 순환이 어려워 經혈이 陷下된 경우에 燔鍼을 써야 할 것이다. 악성종양은 빨리 화농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화종이 되지 않는 것은 대체로 기가 虛한 경우이다. 燔鍼은 그 자체가 뜨거워서 氣를 보하므로 화농을 촉진한다고 보아야 한다.” (朴贊國, 懸社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서울, 집문당, 2005, p. 998.)

52) “이때 상이 편찮은 지 오래였는데, 궁중에서는 저주를 입은 탈이라고 의심하였다. 이에 이르러 이형익을 불러 번침(燔鍼)을 맞았다.” (인조 11년 1월 22일)

53) “번침은 배가 부픈 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열(寒熱)이 반복하는 증상을 다스리는 것이라 하였다.” (인조 26년 8월 2일)

54) 옥당(玉堂): 弘文館의 별칭.

55) “옥당이 차자를 올리기를 ‘… 근일 성상께서 침을 맞으시면서 이형익(李馨益)의 손에 맡겨 경솔히 괴이한 방법을 쓰다 하니 매우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 사대부들 중에 그의 침술을 쓰는 자가 있으나, 일일이 효험을 보았다는 말은 듣지 못하고 더러 해가 따른 것을 신들 중에도 목격하여 아는 자가 있으니, 그 침술이 괴이하고 허탄하여 믿고 쓸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 옥체가 미령하신지 이미 여러 달이 지나 오랫동안 침약(鍼藥)을 쓰시고 계시니 원기가 소삭되었을 것은 알 만한 일인데 빨리 치료하고자 하여 날로 침을 맞고 땀을 뜨고 계시니 영위(榮衛)를 소모할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 성명께서는 널리 의원들에게 물어 모든 침과 약을 일체 보통 처방에 의하여 조용히 치료하여 점차 효험을 거두게 하고 오찰하고 괴이한 사람을 통렬히 물리쳐 사람을 현혹하지 못하게 하소서. … 침을 맞을 때 입시하는 신하는 내시와 이형익의 무리 몇 사람뿐이라 하니, 사리로 헤아려 볼 때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인조 11년 2월 23일)

56) “간원이 아뢰기를 ‘삼가 듣건대, 구례에 상이 침을 맞게 되면 노숙한 의원들을 많이 모아 맥도(脈道)를 상론하여 침놓을 곳을 정한 다음에 약방 제조(藥房提調)·승지·사관이 모두 입시한다 하였습니디. … 근 일에는 상이 침을 맞을 때 의관(醫官)과 내시만 입시하게 하고 약방과 근시는 모두 참여하지 못하게 하

좌우의 혈자리가 조금 차이가 나서 이형익과 입시한 의관들을 함께 추고(推考)⁵⁷⁾하기도 하였다. 당시 사헌부와 사간원의 간원들은 국문⁵⁸⁾하여 중죄로 다스릴 것을 주청하였으나 인조는 따르지 않고 경징계에 그친 것이다⁵⁹⁾.

42세 무렵인 인조 14년 1월 1일에는 병환으로 망궤례(望闕禮)⁶⁰⁾를 정지하기도 하였고, 8일 뒤에는 약방에서 상선(常膳)을 들도록 주청하자 백관들도 개소(開素)⁶¹⁾하도록 하교한다. 이것은 인조의 왕비 인열왕후 한씨(仁烈王后 韓氏)가 한 달 전인 인조 13년 12월 9일에 사망하자 애도하는 마음으로 인조가 소선을 행했던 것인데, 한 달 만에 육선을 회복하면서 관원들도 같이 육선을 들도록 허락한 것이다.

44세 때인 인조 16년은 질병으로 인해 알성(謁聖)⁶²⁾의 예를 정지한 것⁶³⁾ 이외에는 별다른 질병관련 기록이 나타나질 않는다.

45세 때인 인조 17년은 주로 이형익에게 번침을 맞은 기록과 함께 궁중의 저주와 관련한 언급이 나타난다. 8월에는 인조의 병을 이유로 청나라에 억류되어 있는 동궁인 소현세자를 귀근(歸覲)⁶⁴⁾하게 하자는 건의가 있기도 하였다⁶⁵⁾. 이때 거론되는 유달(柳達)은 실록의 기록에는 별다른 언급이 나오질 않지만 아마도 소현세자가 심양에 끌려갈 때 같이 수행했던 침의(鍼醫)로 생각된다. 유달은 심양에 머물면서 세자뿐만 아니라 청나라의 여러

고 있습니다. … 이제부터는 약방 및 승지와 사관을 전례에 따라 모두 입시하게 하소서.” (인조 11년 2월 24일)

- 57) 추고(推考): 罪過가 있는 관원을 신문하여 그 죄상을 고찰함. 관원에 대한 일종의 징계로 사용됨.
- 58) 국문(鞫問): 중대한 죄인을 왕명에 의해 위관(委官)을 정해 국청(鞠廳)에서 신문하는 것.
- 59) “상이 미량한지 오래되어 의관 이형익에게 번침(燔鍼) 치료를 자주 받았는데, 간혹 한 혈(穴)씩 좌우에 조금 차이가 나게 놓았다. 이에 상이 그 시술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의관에게 물었다. 약방(藥房)이 침을 놓은 의관과 그때 동참했던 의관들을 함께 추치할 것을 계청하니, 상이 따랐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침을 놓는 의원은 심본 자세히 살펴야 하는데도, 망령되어 그 기술만 믿다가 그르치는 걱정을 끼쳤습니다. 그 밖의 어의(御醫)도 같이 입사하였다면 침을 놓을 때 반복해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인데, 뒤따라 드나들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으니 그들의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침을 놓은 의관과 함께 입시했던 의원들은 모두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처단하소서. … 그리고 약방 제조는 반드시 입시해야 하는 종전의 예가 있는데 1년이 넘도록 침을 맞으면서 끝내 입시를 유히하지 않으시니 … 구례에 따라 같이 참석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의관은 이미 추고하였으니 중벌로 다스릴 필요가 없다.’ 하였다. 간원도 침술 의원을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주라고 주청했으나, 상이 끝내 따르지 않았다.” (인조 11년 10월 7일)
- 60) 망궤례(望闕禮): 임금이 정월 초하루, 동지, 중국 황제의 탄일인 성절(聖節), 중국 황태자나 황후의 탄신일인 천추절(千秋節)에 왕세자 이하를 거느리고 중국의 황제가 있는 쪽을 향하여 배례하는 의식.
- 61) 개소(開素): 임금이 근신하는 의미에서 素膳을 들다가 비로소 肉膳을 들기 시작하는 것.
- 62) 알성(謁聖): 임금이 성균관 문묘(文廟)의 공자 신위(神位)에 참배하는 것.
- 63) “상이 병이 있어 알성(謁聖)하는 예를 정지하였다.” (인조 16년 3월 25일)
- 64) 귀근(歸覲): 집에 돌아가 어버이를 뵈는 것.
- 65) “상께서 옥체가 편치 못하신 지 오래되어 온 나라가 허둥지둥하는데, 하물며 동궁(東宮)과 대군(大君)이 이역에 머물러 계시니, 인정과 사리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이미 침을 맞은데다가 이어서 저주하는 번고까지 있었으니, 청국에서 이 사실을 듣고는 반드시 마음이 움직일 것이고 보면, 귀근을 허락할 기망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유달(柳達)이 침술(針術)로 청나라에서 신임을 받고 있는데, 이제 다른 의원으로 교체하고 속히 불러올 것 같으면, 귀근을 허락케 하는 데 일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인조 17년 8월 16일)

인사들에게도 의술을 베풀어 상당한 신임을 얻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유달은 소현세자가 귀국하기 이전에 이미 조선에 돌아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청나라에서 황제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재와 명의들을 보내달라는 요청으로 다시 파견되기도 하였다⁶⁶). 이를 뒤인 8월 18일의 기록에는 왕이 침을 맞으려 하자 최명길(李鳴吉)이 이형익과 반충익(潘忠翼)으로 하여금 혈색을 살피도록 건의하였는데, 반충익은 인조에게 사수의 기운이 있는듯하다고 아뢰었고, 지난번과 침을 맞은 혈수(穴數)가 다르다는 인조의 하문에 이형익은 자기 소신껏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청한다. 이 때 덧붙인 사관의 평에는 이형익과 반충익이 요사스런 말로 왕을 현혹하여 망령된 치료를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라 한탄하고 있다⁶⁷). 10월 15일의 기록에는 인조가 심하게 앓아 열담(熱痰)⁶⁸이 상승하자 급히 죽력(竹瀝)⁶⁹ 두 사발을 올렸다는 기록이 나오는데⁷⁰), 4일 뒤인 19일에는 인조가 회복되어 정무를 살폈다고 하였다⁷¹). 죽력은 후일 인조가 임종 직전에 이르러 다시 복용하기도 한 약물이기도 한데, 인조의 고질적 증세인 열담상승으로 인한 상열감(上熱感)이나 한열왕래(寒熱往來) 증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48세 때인 인조 20년에는 후원(後苑)에서 놀다 가마에서 넘어져 상처를 입기도 한⁷²) 기록도 나타난다.

66) “청인이 세자의 관소(館所)에다 말하기를, 황제가 풍증(風症)으로 머리가 어지러우니 죽력(竹瀝)을 보내 주면 좋겠다고 하고 또 명의(名醫)를 보자고 요구하였다. 상이 명하여 침의(鍼醫) 유달(柳達)과 약의(藥醫) 박군 등을 보냈다.” (인조 21년 4월 6일)

67) “상이 침을 맞으려 하였는데 약방 도제조(藥房都提調) 최명길(崔鳴吉)이 아뢰기를 ‘이형익(李馨益)·반충익(潘忠翼) 등으로 하여금 혈색을 살피보게 하소서.’ 하였다. 상이 형익에게 이르기를 ‘저번날 침을 맞은 혈수(穴數)가 적은 듯하다.’ 하니 형익이 아뢰기를 ‘신이 침술을 제 소신껏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아마도 효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충익이 아뢰기를 ‘오늘 안색을 살피보니 사수(邪媿)의 기운이 있는 듯합니다. 이는 형익이 착잡하여 치료하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침을 놓게 하면서 침술을 다 발휘하지 못하게 하면 되겠는가.’ 하였다. 살펴보건대, 반충익은 음성(陰城)의 촌의(村醫)이다. 이형익과 서로 수작하여 날마다 요사스러운 말을 올려 주상의 의혹을 초래하였으니, 이것이 누구의 허물인가. 대체로 제왕(帝王)이 병에 걸리는 것은 기욕(嗜欲)을 절제하지 못한 데에서 연유하는데, 오직 약을 가까이하며 심성(心性)을 수양하여 원기를 점차 완전해지게 하고 영위(榮衛)를 충실하게 한다면, 저절로 치료가 되는 경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질(邪疾)이라고 하면서 요괴(妖怪)한 무리들을 널리 불러와 망령되어 번침(燔鍼)을 놓게 한단 말인가. 가령 만일 사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스리는 방도는 마땅히 정도로 해야 할 것이지, 어찌 사술(邪術)로 사수를 다스리게 하면서 능히 그 효험을 바랄 수 있겠는가. 일반 신하들이 마음속으로 은근히 걱정하지 않는 이가 없었는데, 대신과 대간도 감히 한 마디도 말을 하여 구제하지 못했으니, 어찌 진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

68) 열담(熱痰): 담음(痰飲)의 하나로 본래 담이 있는 사람이 섭생을 잘못하거나 외감병을 잘못 치료하여 열이 속에 몰려 생긴다. 가래가 누러지면서 걸쭉하고 뽀얗도 잘 나오지 않으며 번열증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입이 마르고 대변이 굳다.

69) 죽력(竹瀝): 참대의 줄기를 불에 쪼여 채취한 즙액. 맛은 달고 성질은 차다. 心經經에 작용하여 열을 내리고 담을 삭힌다. 담열로 기침하는 데, 중풍으로 담이 성할 때, 驚風, 癲癇, 破傷風 등에 쓰인다.

70) “초저녁에 상이 열담(熱痰)이 상승하여 급히 약방(藥房)으로 하여금 죽력(竹瀝) 두 사발을 올리게 하니 열담이 다소 내렸다.” (인조 17년 10월 15일)

71) “이날 상이 회복되어 정무를 살폈다.” (인조 17년 10월 19일)

72) “앞서 상이 후원(後苑)에서 놀면서 시녀에게 가마를 메고 가게 하다가 넘어져 상처를 입은 적이 있었는데, 상이 그 사실을 숨겼으나 내국(內局)이 알고서 침약(鍼藥)을 시술할 것을 청하니 상이 비로소 그 사실을 말하였다.” (인조 20년 6월 7일)

49세 때인 인조 21년의 질병관련 기록은 이형익에게 번침을 맞는 것으로 시작된다⁷³⁾. 그해 5월 14일에는 대사헌 이식(李植)이 ‘육체가 편치 못하신 지가 이제 5년이 넘었는데 침과 약을 번갈아 써도 회복되지 않고 있으니’라고 하면서 건강을 지키는 세 가지 요점, 즉 심기를 안정시키고 음식을 절제하며 기거(起居)를 삼가는 것에 대해 유념할 것을 상소한다⁷⁴⁾. 당시 기록에는 인조의 고질병의 증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거론된다. 동년 8월에 행도승지 김육이 번침시술이 불가하다고 아뢰면서 병의 근원을 ‘몸이 부어오르고 한기와 열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라 표현한 것이다⁷⁵⁾. 김육이 아뢰 번침의 불가함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효과가 있으니 그만둘 수 없다고 거부하였는데, 하루 뒤인 8월 9일에 다시 간원이 번침요법에 맹목적으로 의지함을 비판하며 불가함을 아뢰었으나⁷⁶⁾ 역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이처럼 번침요법의 부당함이 여러 차례 상주되었으나 인조는 이후에도 같은 달에만 모두 8차례 번침을 맞는 기록이 나타난다⁷⁷⁾.

50세 때인 인조 22년에는 질병과 관련한 별다른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2월 4일의 기록에 영의정 심열 등이 번침의 해로움을 ‘金火의 독’으로 표현하면서 10년 가까이 번침을 맞았지만 별다른 효험을 보지 못했으므로 이를 중지하고 약제를 통해 치료할 것을 상주한다⁷⁸⁾. 인조는 이러한 주청에 침을 맞는 것을 중지하겠다고 답하였으나 약 5개월 뒤

73) “상이 이형익(李馨益)에게 번침(燔鍼)을 맞았다.” (인조 21년 2월 4일)

“상이 번침(燔鍼)을 맞은 지가 20여 일이 지났는데 이날에 와서야 정지하였다.” (인조 21년 2월 25일)

74) “육체가 편치 못하신 지가 이제 5년이 넘었는데 침과 약을 번갈아가며 써도 회복되지 않고 있으니, 이 어찌 약을 시종드는 신하들이 모두 형편없고 여러 처방이 다 맞지 않아서 그러하겠습니까. 몸을 수양하는 옛사람의 설은 심기(心氣)를 기르고 음식을 절제하고 기거(起居)를 삼가하는 세 가지 요점에 지나지 않으며, 약물은 오로지 질환을 다스리고 허약한 기운을 보충하기 위하여 배려한 것인데 이 또한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올바르게 지켜진 뒤에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인조 21년 5월 14일)

75) “행 도승지 김육이 아뢰기를 ‘...이 번침(燔鍼)의 방법만은 삼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제 우리 성상께서는 불행한 운세를 만나 노심초사로 병이 생기고 뜻이 풀리지 않으며, 홀로 궁중에 깊이 계시므로 기운이 멎혀 트이지 않고 혈맥이 정체되어 돌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몸이 부어오르고 한기와 열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니, 이것이 병의 근원입니다. 오직 마음을 맑게 가지고 진기와 원기를 보양하는 것이 실로 조섭하는 방도에 합당합니다. ... 번침의 법은 비록 고방(古方)이 있기는 하나 마음으로 통하여 묘리를 얻은 자가 아니면 선불리 쓸 수가 없는데 어찌 차마 이 방법을 육체에 시험한단 말입니까.’ 하니 답하기를 ‘번침은 과거에도 효과가 있었으니 그만둘 수 없다.’ 하였다.” (인조 21년 8월 8일)

76) “삼가 생각건대 성상의 뜻은 해묵은 질환이라 뿌리가 이미 깊이 박혔으며 예사로운 감기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계속 침을 맞으시고 살을 지지는 고통도 꺼리지 않으시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신들의 소견은 약을 폐하고 침만 맞아서 안 된다고 봅니다. 이형익(李馨益)의 의술 정도는 감히 알 수 없으나 어찌 성후(聖候)를 치료하는 막중한 일을 오로지 그의 손에 맡기고 더 이상 여러 사람의 뜻을 널리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77) 인조 21년 8월 12일, 21일, 24일, 26일, 27일, 29일, 30일, 9월 5일에 “상이 번침(燔鍼)을 맞았다.” 라고 기록함.

78) “성상께서는 미령하신 이후로 근분을 다스리는 지론(至論)을 믿지 않고 그릇되고 헛된 알팍한 의술로 만전의 효험을 거두시기 위하여 금화(金火)의 독을 육체에 시술하기까지 하셨는데, 10년이 다 되어도 병근이 제거되지 않았으므로 그 진면목이 드러나고 기술이 궁해진 것을 필시 통촉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 당장 목전의 효험만을 기대하여 ... 오늘날까지 수없이 침을 맞으셨는데도 효험은 조금도 없으니 ... 빨리 침을 맞는 것을 중지하고 마음을 맑게 하고 정욕을 줄이는 것으로 병을 다스리는 근분을 삼으심과 동시에 당대의 명의로서 항간에서 이미 시험하여 믿을 만한 유후성(柳後聖)과 이찬(李燦) 같은 무리를 널리 모아 증세에 맞는 약제를 의논해 정하여 장기적으로 확실한 공을 거두도록 하소서.” (인조 22년 2월 4일)

에 낙상으로 인해 다시 침을 맞기 시작한 것⁷⁹⁾으로 여겨진다.

51세 때인 인조 23년은 심양에 억류되어 있던 소현세자가 귀국하였으나 2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당한 해이기도 하다. 이 때의 질병관련 기록들은 대부분 인조가 이형익을 통해 침을 맞거나 뜸을 뜬 것, 그리고 조정대신 및 사관들이 이러한 치료법의 부당성을 아뢰는 것과 이형익을 비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인조 23년 2월에는 약방 도제조 김류 등이 중완(中腕)에 뜸질할 것을 청한 이형익을 징계하도록 주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으며⁸⁰⁾, 4월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이형익에게 번침을 맞은 기록들이 나타난다⁸¹⁾. 소현세자는 그 무렵인 4월 26일에 사망한다. 소현세자의 사망 당일 인조는 좋지 않은 건강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세자의 상례에 임하고자 하였으나 영상과 좌상의 만류가 있자 이를 받아들인다⁸²⁾. 인조는 이 때 식사를 주로 죽으로 들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소현세자의 사망 당일부터는 그나마 거의 들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소현세자 사망 이틀 뒤인 4월 28일에는 이를 걱정한 영의정 김류 등이 인조에게 건강을 위해 억지로라도 죽을 드실 것을 청한다. 인조는 ‘질병을 조리하는 처지에 고집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내국에서 올린 백죽(白粥)과 탕죽(湯粥)을 들게 된다⁸³⁾. 백죽은 쌀로 쏘 흰죽을 말하며, 탕죽은 그 밖의 다른 보양재료로 쏘 죽을 가르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5월 1일의 기록에는 대관들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세자의 상부터 성복(成服)⁸⁴⁾ 때에 이르기까지 죽도 제대로 들지 못해 더욱 건강을 해칠까 염려되니 평상시의 음식으로 회복할 것을 주청하자 이를 윤허한다⁸⁵⁾. 5월

79) “상이 후원(後苑)에 나가 노닐다가 넘어져 몸을 다쳐서 침을 맞았다.” (인조 22년 7월 16일)

80) “상이 열 세 군데의 혈(穴)에 침을 맞았다. 약방 도제조 김류와 좌부승지 이행우가 아뢰기를 ‘육체에 침을 놓고 뜸질을 하는 일이 이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형익(李馨齋)은 신들 및 여러 의원들과 상의하지도 않고 입시한 계제에 갑자기 중완(中腕)에 뜸질할 것을 청하였으니, 그 어리석고 망령되고 꺼리낌 없는 풍조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하게 추고하소서.’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인조 23년 2월 30일)

81) “이때 상이 날마다 이형익(李馨齋)에게서 침을 맞았다.” (인조 23년 4월 1일)

“상이 번침(燻鍼)을 맞았다.” (인조 23년 4월 20일)

“상이 번침을 맞았다.” (인조 23년 4월 23일)

82) “이때 상의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아픔을 참고 세자의 상에 임하므로 영상 김류와 좌상 홍서봉이 세 번이나 아뢰어 대내(大內)로 환궁할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자 대신이 곧바로 문정전(文政殿) 안에 들어가 곧이 청하니, 상이 그제야 따랐다.” (인조 23년 4월 26일)

83) “영의정 김류 등이 아뢰기를 ‘26일 이후로 상께서 죽을 전혀 들지 않으신다 하니 ... 억지로라도 죽을 드시어 신인들의 소망에 부응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비록 질병이 없는 때라도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은 본디 부당한 것인데, 더구나 질병을 조리하는 처지에 어찌 고집할 리가 있겠는가. 계속 죽을 들고 있으나 경들의 간절한 뜻이 여기에까지 이르렀으니, 의당 더 유의하여 힘써 죽을 들겠다.’ 하였다. 김류 등이 또 ‘신들이 반드시 상께서 죽 드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서야 물러가겠다.’고 청하고, 이어 백죽(白粥)과 탕죽(湯粥) 각 한 그릇씩을 받들어 올리니, 상이 이르기를 ‘경들의 간절한 뜻이 지금 또 이러하니 탕죽을 많이 들겠다.’ 하였다. 내관이 물론 그릇(退器)을 가지고 나와 보여주자, 김류 등이 그제야 물러나왔다. (인조 23년 4월 28일)

84) 성복(成服): 초상이 난 뒤 상복이 만들어지면(사흘에서 닷새 뒤) 상제들이 일제히 상복차림을 하는 것.

85) “영의정 김류가 2품 이상의 관원들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 상상께서 막 초상날 때로부터 성복 때에 이르기까지 죽도 드시지 않았나 하니, 건강이 좋지 않으신 때에 더욱이나 어찌 이렇게 하셔서야 되겠습니까. ... 삼가 바라건대 지극한 정을 애써 억누르시고 평상시의 음식으로 복귀할 것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성복이 겨우 지난 이때에 어찌 차마 평상시의 음식으로 복귀하겠는가.’ 하였다. 3일 동안 연계 하니 상이 그제야 윤허하였다.” (인조 23년 5월 1일)

3일의 기록에는 약방이 침을 맞는 일로 계품(啓稟)⁸⁶하고 이형익을 불렀는데 오지 않으므로 인조가 침을 맞지 않기도 한다⁸⁷. 이런 사실은 당시 약방의 都提調를 비롯하여 여러 대관들과 이형익이 상당한 갈등관계에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조는 직후 여전히 이형익에게 번침을 맞았으며⁸⁸, 탁핵을 주청하는 상소도 계속된다⁸⁹.

6월 12일의 기록에는 이형익이 경외기혈(經外奇穴)인 요안혈(腰眼穴)⁹⁰에 뜬 기록이 나타난다⁹¹. 요안혈에 뜬 기록은 이 때 처음 나타나나 3년 뒤인 인조 26년에도 다시 시행되기도 하였다. 이후의 기록을 살펴보면 인조가 요안혈에 뜬 이유가 요안혈의 일반적인 적응증과는 관련 없이 사수, 즉 정신질환을 치료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 해 9월 8일에는 인조의 병과 관련하여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기록이 나타난다. 즉, 약방 도제조 김류 등이 문안하자 인조가 “봄 가을이면 으레 앓던 증세가 지금은 나왔다.”라고 하였으며, 이 부분 사관의 평에 “상이 매양 봄 가을로 한열(寒熱) 증세를 앓아왔는데…”라고 한 것이다⁹². 인조가 봄 가을로 앓았다는 한열증세는 의학적 병증의 표현을 빌리면서 한열왕래(寒熱往來)로 지칭할 수 있다. 한열왕래는 추웠다가 다시 열이 나는 증상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傷寒病과 雜病 등에서 볼 수 있다. 상한에 의한 한열왕래는 少陽病 半表半裏症의 주된 증상으로 입맛이 쓰고(口苦), 목안이 마르고(咽乾), 눈이 어지럽고(目眩), 가슴과 옆구리가 불러 오르면서 그득한 감이 있고(胸脇脹滿), 현맥이 뛰는(脈

86) 계품: 임금께 아뢰. 啓奏. 啓聞

87) “약방이 상이 침을 맞을 일로 계품하고 또 이형익을 불렀는데, 이형익이 대간의 논핵을 칭탁하여 오지 않으므로 상이 편치 않게 여겨 마침내 침을 맞지 않았다.” (인조 23년 5월 3일)

88) “상이 번침(燔鍼)을 맞았다.” (인조 23년 5월 9일)
“상이 번침을 맞았다.” (인조 23년 5월 15일)

89) “양사가 합계하기를 ‘삼가 보건대 약방(藥房)의 계사(啓辭) 가운데 자시(子時)와 해시(亥時) 사이에 뜬 뜰을 하여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어 매우 놀라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상의 옥체에 뜬 뜰을 하는 일이 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일개 요사스러운 의원의 말만을 인하여 시험할 수 없는 일을 이와 같이 행한단 말입니까. … 한밤중에 뜬 뜰하라는 명을 정지하소서. … 이형익 등을 속히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정하도록 명하소서.’ 하고, 옥당도 차자를 올려 논쟁하였으나, 상이 모두 따르지 않았다.” (인조 23년 6월 12일)

90) 요안(腰眼): 제4, 제5요추극상돌기 양방 3.5-4촌 부위의 經外奇穴. 폐결핵, 기관지염, 기관지천식, 고환염, 요통, 당뇨, 산부인과질환, 頻尿, 虛勞 등의 병증에 적용된다. (동의학사전, 서울, 까치, 1990. p. 756.) (張大千, 中國鍼灸大辭典, 北京, 北京體育學院出版, 1988, p. 985.)

91) “밤중에 상이 요안혈(腰眼穴)에 뜬 뜰을 하였는데, 이형익 혼자서 환관 한 사람과 함께 입시하였고, 약방 및 승지 사관은 모두 감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에 앞서 상이 오랫동안 질병을 앓던 중 대궐 안에 마침 저주의 번고가 있자, 이형익이 사악한 빌미를 다스릴 수 있다는 이유로 번침(燔鍼)을 놓아드렸는데, 이것이 약간 효과가 있어 마침내 총애를 받아서 상사(賞賜)한 것을 이루 다 기록할 수도 없었다. 이형익은 어리석고 도리에 어긋난 위인으로서 스스로 상의 뜻을 얻었다고 여겨, 무릇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마다 은밀히 상께 말하여 그의 형제와 자식이 모두 음직(蔭職)을 외람되어 차지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그를 분개하게 여겼다. 이때에 이르러 이형익이 혼자서 뭇사람의 의논을 물리치고 망령되어 요안혈에 뜬 뜰을 하였는데, 상은 그의 의술에 미혹되어 매양 번침을 맞을 때마다 ‘호환이 있다.’고 말씀하였으므로, 뭇 신하들이 모두 감히 극력 논쟁하지 못했다.”

92) “약방 도제조 김류 등이 문안하니, 답하기를 ‘봄 가을이면 으레 앓던 증세가 지금은 이미 나왔다.’ 하였다. 상이 매양 봄 가을로 한열(寒熱) 증세를 앓아왔는데, 이때에 이르러서는 이미 나아서 간혹 대군 및 환관들과 더불어 원중(苑中)에서 노닐며 즐기거나 하고 대신과 비극 당상을 인견하려 하지 않았으며, 경연도 오래도록 폐하였으므로, 식견 있는 이들이 이를 걱정하였다.”

弦) 등의 증상을 수반한다. 잡병에 의한 한열왕래는 다시 2가지로 나뉘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氣가鬱結되어 火로 변하고 寒熱往來가 발생하여 마치 瘧疾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며, 구토증과 신물이 넘어오고(嘔吐吞酸), 속이 답답하며 트림이 나오고(嘈雜), 가슴과 옆구리가 아프고(胸脇痛), 아랫배가 불러오고(少腹脹), 어지럽고 눈이 아득한(頭暈目眩) 증상 등을 수반한다. 다른 한 가지는 陰이 허해져서 陽이 偏勝한 경우(陰虛陽勝) 혹은 陰陽이 모두 허한 경우(陰陽俱虛)에 나타나는 것으로 대부분 虛損類의 병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한열왕래 증세는 이후 지속적으로 거론되는데, 사망하기 하루 전에도 의관들이 ‘학질증세가 조금 있으나 곧 그칠 것이다.’라고 한 것을 보건대 인조를 괴롭힌 가장 고질적 병증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거론된 학질은 학질모기를 매개체로 전염되는 말라리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한과 발열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한열왕래 증세를 표현한 것이라 생각된다.

인조의 경우 한열왕래 증세는 주된 원인이 전술한 바와 같이 內傷, 즉 脾胃의 손상으로 인해 氣血이 모두 허해진 상태에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氣의 울체로 인해 內火가 발생하여 나타났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인조는 反正을 통해 신하들의 힘에 의해 집권한 임금이었기 때문에 전대의 다른 임금들보다 권력의 토대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권력기반의 취약성으로 인조는 줄곧 권신들의 눈치를 봐야만 했었고, 또 다른 반정을 염려해야만 했다. 이런 상황 하에 자신의 질병을 저주와 관련짓기도 하는 의심 많은 성격이 형성되기도 하였고, 필연적으로 氣의鬱滯를 가져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괄의 난이나 두 차례에 걸친 호란 등으로 인해서도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중압감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결론적으로 정신적 중압감으로 인한 氣의鬱滯, 그리고 脾胃 손상으로 인한 氣血俱虛가 함께 작용하여 한열왕래 증상을 드러냈던 것이고, 이것이 인조의 질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으며 사망의 주요요인으로도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52세 때인 인조 24년에도 인조의 병증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기록이 나온다. 1월의 기록에 인조가 의관들에게 하교하는 말 가운데 “이달 초부터 열이 가끔 위로 치밀어 가슴이 답답하더니 근래에 들어서 증세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 독을 먹은 데서 오는 증상인 것 같다.”라고 한 것이다. 이 때 나타난 上熱感은 이전부터 있어왔던 寒熱往來 증상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이런 병증의 원인을 인조는 독을 먹은 것에서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보름 전에 발생했던 소위 ‘전복구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1월 3일의 기록을 보면 인조는 전복구이를 먹다가 전복 속에 독이 든 것을 의심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세자빈 강씨 측근 궁인들과 어주나인(御廚內人)들을 심문하게 한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대신들이 처벌을 만류하였지만 결국 세자빈 강씨는 3월 15일에 사사된다. 이러한 조작된 혐의가 짙은 ‘전복구이 사건’은 사관의 평에서도 소현세자를 배척했던 조숙의(趙淑儀)의 모함 가능성을 대궐주변의 의심을 빌어 아울러 수록하고 있다. 당시 인조는 조숙의의 사주이든 아니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독살관련 모함을 사실로까지 받아들인 것인데, 주위의 사람들을 극도로 믿지 못하고 일종의 피해망상증

증세까지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국 인조는 이형익 등이 올린 독을 제거하는 처방을 복용하기까지 한다⁹³). 같은 해 11월 5일에는 “상이 환후로 열이 치솟아 귀가 막히는 증세가 있었다.”라고 언급한 것을 보건대 上熱症이 지속되어 귀가 잘 들리지 않게까지 된 것을 알 수 있다.

53세 때인 인조 25년은 병증과 관련한 특별한 언급은 나오질 않고 단순히 번침을 맞았다는 치료기록들만 계속된다. 이러한 번침치료기록은 2월에 5차례⁹⁴), 11월에 12차례⁹⁵), 12월에 9차례⁹⁶)나 집중되어 나타난다. 인조는 빈번한 침치료로 인해 의관들에게 상을 내리기도 하였으나⁹⁷) 이것은 이때 이미 인조의 병세가 예사롭지 않게 깊어졌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기할만한 기록은 11월 11일에 이형익이 번침을 놓으면서 속히 궁을 옮기도록 인조에게 건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이형익은 “문혀 있는 흉악한 물건을 다 파내기 어려우므로 이 궁에 하루라도 거처해서는 안 됩니다. 궁을 이어하는 효험이 침의 효험보다 빠를 것으로 여겨집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이형익이 여러 차례 번침을 놓았으나 치료가 여의치 않자 인조의 병세를 저주와 관련지으면서 궁여지책으로 한 말로 생각된다. 결국 인조는 다음날 창덕궁(昌德宮)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 죽기 전까지 약 1년 6개월을 이곳에서 머물다가 사망하게 된다.

54세 때인 인조 26년은 인조가 사망하기 1년 전에 해당된다. 이 때의 기록들도 여전히 번침을 맞은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아울러 요안혈(腰眼穴)에 뜬 기록도 나타난다. 실록의 기록에는 요안혈에 뜬 목적은 사수, 즉 정신질환과 관련된 증세를 치료하고자 한 것이며, 번침은 고질적 증세인 寒熱往來를 치료하고자 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당시 인조는 몇 해 전부터 이미 병이 깊어져 상당기간 정상적인 정무를 돌보지 못한 상태였다⁹⁸).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인조는 물론 율내의 여러 사람들이 저주와 관련한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4월 25일의 기록에는 번침을 맞을 때 입시한 김자점이 저주를 입은 창경궁에 거동하지 말 것을 주청한다⁹⁹). 다음날도 인조는 번침을 맞았는데 이때도

93) “상이 의관 박태원(朴泰元)·이형익(李馨益)·유후성(柳後聖) 등을 급히 부르고, 또 어의 최득룡(崔得龍) 등에게 하교하기를 ‘이달 초부터 열이 가끔 위로 치밀어 가슴이 답답하더니 근래에 들어서 증세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 독을 먹은 데서 오는 증상인 것 같다.’ 하니, 약방(藥房)이 아뢰기를 ‘내간(內間)에서 발생한 홍역(兇疫)의 변고는 지난 역사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 조속히 약을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자, 상이 이형익 등으로 하여금 들어와 병을 살피게 하였다. 이형익 등이 독을 제거하는 처방을 올리니 상이 복용하였다.” (인조 24년 1월 18일)

94) 2월 17일, 18일, 20일, 22일, 23일에 “상이 번침(燔鍼)을 맞았다.”라고 함.

95) 11월 4일, 8일, 11일, 15일, 16일, 18일, 19일, 21일, 23일, 24일, 26일, 28일에 “상이 번침(燔鍼)을 맞았다.”라고 함.

96) 12월 1일, 2일, 4일, 7일, 8일, 11일, 13일, 15일, 20일에 “상이 번침(燔鍼)을 맞았다.”라고 함.

97) “침을 맞을 당시의 약방 도제조 이하에게 차등 있게 상을 내렸다.” (인조 25년 6월 24일)

98) “이때 상이 여러 해 동안 미령한 탓으로 오랫동안 조정에 나아가 시사(視事)하지 않았다.” (인조 26년 3월 27일)

99) “상이 번침(燔鍼)을 맞았다. 김자점이 내의원 도제조(內醫院都提調)로 입시해 있다가 상에게 아뢰기를 ‘신이 들은 바에 의하면 속기(俗忌)에 저주를 한 곳에는 절대로 왕래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창경궁(昌慶宮)에는 거동하지 마소서.’ 하니 상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인조 26년 4월 25일)

조경이 저주와 관련하여 마음을 편히 다스릴 것을 아뢰고 있다¹⁰⁰). 이후 인조는 4월, 5월, 7월, 8월에 걸쳐 계속해서 번침을 맞는다¹⁰¹). 8월 2일의 기록에 살갓이 타는 듯한 소리가 창밖으로 들려올 정도라 표현하는 것¹⁰²)을 보건대, 당시 이형익의 번침은 강도가 강력했었고 따라서 번침을 맞는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같은 날 인조의 답변 가운데 번침을 맞는 목적에 대해 말하는 부분이 나온다. 이 때 인조는 조경의 물음에 “번침은 배가 부픈 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열(寒熱)이 반복하는 증상을 다스리는 것이다.”라고 답하고 있다¹⁰³). 즉, 번침의 목적이 고질적인 한열왕래(寒熱往來) 증세를 치료하고자 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당시 인조는 스스로 배가 부픈 것에 대해서도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복창(腹脹) 증상은 전술한 바와 같이 氣가鬱結되어 丙火로 변해 한열왕래가 발생하였는데, 이때 수반되어 나타날 수 있는 소복창(少腹脹) 증세로 이해된다.

이 해 6월 30일에는 요안혈에 뜬 뜸을 뜬 기록도 나타난다. 요안혈에 뜸을 뜬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3년 전인 인조 23년 6월에 이미 시행되기도 한 치료법이였다. 이때 인조는 또다시 이형익의 주청대로 한밤중에 은밀히 이형익을 불러 좌우의 요안혈에 뜸을 뜨게 하는데, 사관의 평에는 이형익의 어리석고 경솔한 인품에 대해 비난하는 글을 덧붙이고 있다¹⁰⁴). 뜸을 뜨기 하루 전인 6월 29일의 기록¹⁰⁵)을 보면 인조가 이형익을 불러 진찰케 하면서 계해일인 내일 밤에 요안혈에 뜸을 뜨라고 명한다. 그러자 약방제조 조경 등이 3

100) “상이 번침을 맞았다. 내의원 제조 조경(趙綱)이 아뢰기를 … ‘구궁(舊宮)의 저주가 혹 상의 마음을 의혹시킨 것인가 염려스럽습니다. 일이 지난 뒤에는 반드시 태연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이미 사특한 것을 제거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냈는데 무슨 의심스런 생각을 지닐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이 들 때에 어찌 의심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인조 26년 4월 26일)

101) 전술한 4월 25일, 26일에 이어 27일, 30일에도 번침을 맞은 기록이 나타난다. 5월 2일에도 번침을 맞은 기록이 나타나며, 7월에 들어와 28일, 29일에도 번침을 맞는다. 8월에는 2일, 4일, 5일, 7일, 9일, 11일, 12일, 14일, 16일, 18일, 19일에 걸쳐 모두 11차례 번침을 맞는다.

102) “침을 맞을 때 옥체의 살갓에서 불에 타는 것 같은 소리가 창문 밖으로 들려왔다.” (인조 26년 8월 2일)

103) “조경(趙綱)이 아뢰기를 ‘배가 부픈 증세 하나뿐이라면 번침이 효험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 다른 증세라면 번침으로 치료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번침은 배가 부픈 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열(寒熱)이 반복하는 증상을 다스리는 것이다.’라 하였다.” (인조 26년 8월 2일)

104) “한밤중에 상이 요안혈에 뜸을 떴다. 이형익이 아뢰기를 ‘요안혈에 뜸을 뜨는 것은 비밀스럽게 해서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했기 때문에, 한밤중이 된 뒤에 상이 은밀히 형익 등을 불러 좌우의 요안혈에 뜸을 뜨게 하여 정원에서 모르게 하였다. 형익은 인품이 어리석고 외람되며 행동거지가 추속하였으므로 상의 앞에서 말을 가리지 않았는데, 상도 그것을 나무라지 않았다.” (인조 26년 6월 30일)

105) “상이 이형익 등을 불러서 들어와 진찰하게 하였다. 그리고 계해일인 내일 밤에 요안혈(腰眼穴)에 뜸을 뜨라고 명하였다. 약방 제조 조경, 도승지 김남중 등이 물러나와서 아뢰기를 ‘신들이 약방일기(藥房日記)를 상고하여 보니 일찍이 을유년에 위에서 형익에게 요안혈에 뜸을 뜨는 것에 대해 하문하신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주호하였는지의 여부는 외정(外廷)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오늘날 성상의 증상에 합치되는 것입니까. 임금이 뜸을 뜨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이런 무더운 때를 당해서는 여염의 사람들도 침구(鍼灸)를 금하고 있는데, 더구나 옥체가 바야흐로 정섭(靜攝)하는 중에 있는 데야 말해 뭐하겠습니까. 단지 한 의관의 말만 듣고 밤중에 뜸을 뜬다는 것에 대해 신들은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인조 26년 6월 29일)

년 전인 乙酉年(인조 23년)에 이미 요안혈에 뜸을 떴지만 당시 얼마나 효과를 얻었는지 모르겠으며, 과연 요안혈에 뜸을 뜨는 방법이 지금의 증세에 합치되는 치료법인가 의심하는 말을 아뢴다. 이렇게 조경 등이 이형익 한사람만의 말만 믿고 경솔하게 뜸을 뜨지 말 것을 주청하였으며, 사헌부에서도 뜸뜨는 것을 신중히 하도록 건의 하였으나¹⁰⁶⁾ 인조는 모두 따르지 않는다. 그런데 요안혈에 뜸을 떼야 한다는 이형익의 요청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1년 전에 있었으며, 이 요청을 받아들인 인조는 이 해 6월 30일 계해일에 이르러 한밤중에 뜸을 뜨게 한 것이다. 요안혈을 계해일 한밤중에 자침한 것은 宋代의 張杲가 편술한 『醫說』에서 그 근거를 살펴볼 수 있다. 『醫說』은 醫話を 記錄한 최초의 서적으로도 평가되는데, 여러 가지 의심나고 治療가 어려운 雜證治療 경험을 수록해 놓고 있다. 그 가운데 瘵疾, 즉 폐결핵을 치료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六神¹⁰⁷⁾이 모두 모이는 癸亥日 밤 二更(9시에서 11시)에 요안혈에 뜸을 뜨면 치료가 된다고 하였다¹⁰⁸⁾. 전술한 바와 같이 요안혈의 일반적인 적응증은 폐결핵, 기관지염, 기관지천식, 고환염, 요통, 당뇨, 산부인과질환, 頻尿, 虛勞 등의 병증에 있다. 그러나 인조가 요안혈에 뜸을 뜬 목적은 일반적인 요안혈의 적응증과는 관련이 없는 사수, 즉 정신질환과 관련된 증세를 치료하고자 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¹⁰⁹⁾. 그러나 뜸을 뜬지 약 1달 뒤의 기록을 보면 요안혈을 이용한 뜸치료는 그다지 신통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7월 28일의 기록¹¹⁰⁾에 인조가 “요안혈에 뜸을 뜨고 난 뒤에도 별로 차도가 없으니, 아직 딱지가 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조경이 여러 의서를 살펴보건대 요안혈에 뜸을 뜬 것은 인조의 병환에 합당하지 않으니 이형익의 죄를 추고(推考)하라는 주청을 하였으나 인조는 딱지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으니 좀 더 기다리라

106) “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약방의 계사를 살펴 보고서야 비로소 뜸을 뜬다는 명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 어떻게 다른 의관에게는 묻지 않은 채 경솔하게 한 의관의 황당무계한 말만을 믿고 옥체를 수고롭게 하면서 밤중에 뜸을 뜰 수 있겠습니까. 다시 약방에 하문하여 보호하는 방책을 극진히 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인조 26년 6월 29일)

107) 六神: 五方を 지키는 여섯 神. 동방의 靑龍, 서방의 白虎, 남방의 朱雀, 북방의 玄武, 중앙의 句陳과 騰蛇.

108) “女童莊妙眞緣姊坐瘵疾不起 … 趙曰吾得一法 治此甚易 當以癸亥夜二更 六神皆聚時 解去下體衣服 於腰上兩傍微陷處 鍼灸家謂之腰眼 直身平立 用筆點定 然後上牀合面而臥 每灼小艾炷七壯 勞蟲或吐出 或瀉下 即時平安 斷根不發 更不傳染 敬如其教 因此獲生” (張杲, 醫說[四庫全書 子部 醫家類], 卷二 鍼灸 瘵瘵疾, 서울, 대성문화사, 1995, 권10, p. 742-46.)

109) “이에 앞서 형익이 상에게 아뢰기를 ‘6월 계해일에 요안혈(腰眼穴)에 뜸을 뜨면 모든 병이 치료되고 사수를 다스리는 데는 더욱 신묘합니다. 내년 6월 계해일에 요안혈에다 뜸을 뜨면 상의 병환이 나올 것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으므로 신하들이 간쟁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한 것이다.” (인조 26년 6월 29일)

110) “상이 번침(燔鍼)을 맞았다. 아침에 상이 방문을 닫고 실내에 앉아서 어의(御醫) 최득룡(崔得龍)·이형익(李馨益)·유후성(柳後聖) 등의 진찰을 받았다. 득룡 등이 아뢰기를 ‘육맥(六脈)의 부삭(浮數)을 촉감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고, 형익은 아뢰기를 ‘맥이 부삭하면서 열이 안으로 움츠러들고 있으니, 이는 전일의 증세가 재발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요안혈(腰眼穴)에 뜸을 뜨고 난 뒤에도 별로 차도가 없으니, 아직 딱지가 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였다. 조경이 아뢰기를 ‘여러 의서(醫書)를 상고하여 보니, 요안혈에 뜸을 뜨는 것이 실로 치료를 주관하고 있기는 하였습디만, 상의 병환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형익이 망령되어 시행한 죄를 추고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딱지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으니 우선 기다리라.’ 하였다.” (인조 26년 7월 28일)

는 말로 이형익을 변호한다.

인조 27년은 그 해 5월에 이르러 결국 인조가 55세로 사망한다. 사망하기 1주일 전인 5월 1일의 기록을 보면 인조가 스스로 상한(傷寒)을 얻었다고 하였으며, 약방에서 감풍(感風) 증세로 약을 지어 바친 것으로 보건대¹¹¹⁾ 사망 직전 인조는 감기증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인조는 여전히 이형익에게 침을 맞았는데¹¹²⁾, 병세가 여의치 않자 여러 의관들을 불러 진찰케 하기도 하였다¹¹³⁾. 사망 하루 전인 5월 7일의 기록을 보면 의관들은 물론 인조 스스로도 자신의 병세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즉 의관들은 인조의 병세에 차도가 있으며 잠시 학질증세가 있으나 곧 그칠 것이라 말했으며, 약방에서 시약청(侍藥廳)을 설치하길 건의하였으나 인조는 폐단이 있으니 설치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다¹¹⁴⁾. 그러나 저녁에 들어서면서부터 병세가 다시 위독해졌고, 다음날 유시(酉時)에 이르러 결국 창덕궁의 동침(東寢)에서 사망하게 된다. 사망 당일의 기록¹¹⁵⁾을 보면 세자가 부왕의 위독한 증후를 말해 어의들이 죽력(竹瀝)과 청심원(淸心圓) 등의 약을 바치고, 세자가 단지(斷指)까지 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다. 인조의 질병치료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이형익은 양사(兩司)에서 그 책임을 물어 사형에 처할 것을

111) “약방 도제조(藥房都提調) 김자점 등이 아뢰기를 ‘옥후(玉候)의 조섭(調攝)이 전보다 어떠하십니까?’ 하니, 답하기를 ‘요즈음 상한(傷寒)을 얻었으나 대단하지는 않다.’ 하였다. 약방이 입진(入診)한 뒤에 아뢰기를 ‘성후(聖候)는 감풍(感風)의 증세이니 약을 지어 바치겠습니다.’ 하니 상이 떠랐다.” (인조 27년 5월 1일)

112) “상이 침을 맞았다. 이형익의 말을 따른 것이다.” (인조 27년 5월 3일)
“상이 침을 맞았다.” (인조 27년 5월 5일)

113) “상이 의관(醫官)들을 불러 입진하게 하였다. 약방이 전 승지 이원진(李元鎭)이 약리(藥理)에 정통하다 하여 약을 의논할 때에 참여하게 하기를 청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인조 27년 5월 6일)

114) “상이 미시(未時)에 한기(寒氣)가 조금 있고 신시(申時)에 두드러기가 크게 나고 유시(酉時)에 한기가 조금 풀렸다. 의관들이 다 말하기를 ‘오늘은 상의 증세가 갑자기 차도가 있으니, 학질 증세가 조금 있으나 곧 그칠 것이다.’ 하니, 이 때문에 근밀한 신하까지도 마침내 위독하게 되는 것을 몰랐다. 약방이 구전(口傳)으로 아뢰기를 ‘시약청(侍藥廳)이 아직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온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염려합니다. 오늘부터 시약청을 설치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폐단이 있으니 설치하지 말라.’ 하였다. 저녁에 상의 병이 위독하므로 의관들이 입진하였는데 … 의관들은 다 대조전(大造殿)의 뜰 아래에 있었는데, 새벽이 되어 열이 조금 내렸으므로 약방 도제조 김자점 등이 다 함문(閤門) 밖으로 물러나갔다. 날은 이미 희미하게 밝았다.” (인조 27년 5월 7일)

115) “상이 창덕궁(昌德宮)의 대조전 동침(東寢)에서 승하였다. 미시에 상의 병이 위독하므로 세자가 의관에게 하령(下令)하니, 의관들이 약을 받들고 달려 들어갔다. 약방 도제조 김자점, 제조 조경, 부제조 김남중, 주서 이후, 검열 서필원, 조사기 등이 회정당 동쪽에 들어와 앉고, 이육고 좌의정 이경석도 들어 왔는데, 어의들이 다 증후가 위독하다고 하였다. 세자가 월랑(月廊)에 자주 나와 어의에게 상의 증후를 말하면 죽력(竹瀝)·청심원(淸心圓) 등의 약을 잇따라 바쳤다. 신시에 세자가 하령하기를 ‘상후(上候)가 이에 이르렀는데 중전(中殿)께서 현재 경덕궁에 계시니 서둘러 모셔왔으면 한다.’ 하니, 대신이 함께 아뢰기를 ‘하령이 매우 마땅하십니다.’ 하고는 목메어 울었는데, 사관·의관 등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 세자가 상의 귓가에 대고 말하기를 ‘들리십니까? 신이 누구입니까?’ 하기를 세 번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못하였다. 김자점·이경석도 말하기를 ‘신들이 여기 왔습니다.’ 하였으나, 상이 또한 답하지 못하였다. … 세자가 또 대신을 불러 김자점·이경석과 조경·김남중·이후·서필원·조사기 등이 들어가 침방 안에 이르렀는데, 울부짖는 소리가 이미 궁중에서 났다. 세자의 왼 손가락에 피가 줄줄 흘렀는데, 이는 세자가 손가락을 잘랐으나 대군(大君)의 도움으로 뼈가 절단되지는 않은 것이었다. 중전이 경덕궁에서 돈화문(敦化門)을 거쳐 협양문(協陽門)으로 들어와 대내(大內)에 돌아올 때에 상이 승하였는데, 일관(日官)이 막 유시(酉時)를 알린 때였다.” (인조 27년 5월 8일)

청했으나 선왕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효종의 변호로 인해 인조 사망 약 1달 보름 뒤에 경원부(慶源府)¹¹⁶⁾에 유배되는데 그친다¹¹⁷⁾. 그러나 이러한 유배조치도 왕대비의 위급한 증세로 인해 약 1년 7개월만에 중단되어 석방되게 된다¹¹⁸⁾.

Ⅲ. 맺음말

인조가 건상 상에 문제를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은 32세 때인 인조 4년부터이다. 이 때 인조는 생모인 계운궁을 잃고 정신적인 충격과 비정상적인 식사를 1년 가까이 지속하면서, 몸이 수척해지고 얼굴이 검어지며 목소리까지 변하게 되는 증세를 드러낸다. 38세 때인 인조 10년부터는 더욱 질병관련 기록들이 빈번하게 나오는데, 정치적 후원자였던 인목대비의 유고를 계기로 內傷과 外感이 겹친 병증을 나타낸다. 즉, 인조의 근원적 병증은 內傷인 脾胃의 병에 있었는데, 脾胃虛損으로 衛氣가 虛해진 상태에서 外邪에 감촉된 것으로 생각된다.

인조를 가장 괴롭혔던 寒熱往來 증세도 傷寒病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內傷인 脾胃의 손상으로 氣血이 모두 허해진 상태에서 발생한 병증으로 추측된다. 뿐만 아니라 인조는 반정을 통해 집권하여 상대적으로 권력기반이 취약하였으며, 잇단 전란 등을 겪으면서 內憂外患의 정신적 충격과 중압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 하에 필연적으로 인조는 氣의 鬱滯를 가져왔고 脾胃虛損으로 인한 寒熱往來 증세를 더욱 악화시켜 고질적인 증세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인조는 자신의 이러한 병증을 당시 궐내에 발생했던 저주사건을 빌미로 저주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면서 邪祟로 언급·표현하였다. 이로 인해 이형익을 불러올려 번침을 맞기 시작하는데, 사망 직전까지 약 16년간이나 계속된다. 이형익의 번침술은 번침의 일반적인 적응증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인조의 脾胃虛損에 의한 寒熱往來 증상 등을 저주에 의한 邪祟로 간주하고 이를 치료하고자 시도되었다. 實錄에 나타난 몇가지 근거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형익의 번침술은 자침 전에 먼저 불로 달구는 火鍼法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虛寒證에 일시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근본적인 치료법은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인조의 병증치료는 약물치료보다는 침구치료 위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전대의 宣祖나 光海君代부터 시작된 조선중기 의학의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생각된다.

[參考文獻]

116) 慶源府: 咸吉道 慶源都護府. 지금의 咸鏡北道 慶源郡.

117) 효종 즉위년 6월 23일의 기록.

118) “왕대비의 증세가 차츰 위급해지고 있어 침의 이형익을 특별히 석방하니 말을 지급하여 들어오게 하라.” (효종 2년 1월 26일)

1. 實錄廳撰, 朝鮮王朝實錄, 서울, 探求堂, 1979.
2. 許浚,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87.
3. 張介賓, 類經, 서울, 대성문화사, 1982.
4. 法制處, 古法典用語集, 法制處, 1979.
5. 東醫學辭典, 서울, 까치, 1990.
6. 中文大辭典, 臺北, 1985.
7. 朴贊國,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서울, 집문당, 2005.
8. 金達鎬, 注解補注黃帝內經素問, 서울, 의성당, 2001.
9. 김인숙, 인조의 질병과 변침술, 대한의사학회, 의사학, 13권 2호, 2004.
10. 金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81.
11. 張大千, 中國鍼灸大辭典, 北京, 北京體育學院出版, 1988.
12. 張杲, 醫說[四庫全書 子部 醫家類], 서울, 대성문화사, 1995.